

## 오프 캠퍼스 하우스

교내 기숙사에서 사는 것도 안전하고 재미있겠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룸메이트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 밖의 집구하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좋고 학교하고 가까운 시설 3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니버시티 빌리지([www.uvfresno.com](http://www.uvfresno.com))
2. 불독빌리지([www.bulldogvillage.com](http://www.bulldogvillage.com))
3. 팔라조

먼저 제가 살고 있는 유니버시티 빌리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가격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데 지금 8개월을 계약하고 들어온 경우 한 달에 \$483 입니다. 4인1실일 경우이고 물론 개인 방이 있고 방마다 욕실이 딸려있어서 룸메이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2인1실의 경우 가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방을 원하신다면 4인1실을 추천합니다. 이곳은 다른 집들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원하는 데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학기만 등록했기 때문에 4개월만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짧으면 한 달 집세는 장기계약보다 비싸집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계약기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학 때는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장기로 렌트해서 가격을 싸게 하고 집을 비워 두느냐와 단기로 렌트하고 방학 때는 집을 빼는지는 가격을 비교해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학교까지 거리는 자전거 타고 5분 정도 걸리고 주로 이용하게 될 건물까지는 7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독빌리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곳의 최대 장점은 학교와의 거리 입니다. 도로 하나만 건너면 캠퍼스 입니다. 단, 주로 이용하게 될 건물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총 소요 시간은 자전거 이용 시 4분 정도 되겠습니다. 불독빌리지는 단기로 렌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 학교의 학기 기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가을학기가 1학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봄 학기에 오면 2학기에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을 구할 때처럼 1년씩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면 6개월을 계약하고 가을학기가 시작할 때 다시 1년 치를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봄 학기가 끝나고 6개월 렌트가 남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처분해야 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인수인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유니버시티 빌리지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불독의 경우도 2인1실과 4인1실이 있는데 가격은 4인1실이 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불독은 4인1실의 경우 욕실이 2개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다음은 팔라조 입니다. 팔라조는 일단 시설이 가장 좋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시설이 좋으면 당연히 비싸겠죠. 팔라조는 셋 중 학교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신다면 주로 이용하는 건물까지 10분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라조의 경우는 시설이 좋다는 빼고는 이렇다 할 장점이 없네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난

한 유학생의 입장에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격정보나 사진들은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프 캠퍼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가격이 기숙사에 사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처음에 정착하기 위한 비용이 좀 들지만 일단 살림살이가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음식 값 나가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음식만 잘 할 줄 아신다면 기숙사 사는 것보다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숙사보단 자유스럽기 때문에 파티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친구들,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단, 기숙사를 들어가서 밖에서 사나 룸메이트를 만나는 것은 복불복입니다. 정말 성격 안 맞고 별로인 룸메를 만난다면 미국생활 반은 망쳤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룸메는 미국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디 오시는 모든 분들 좋은 룸메이트 만나서 즐거운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3곳 모두 근처에 마트가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장 보러 가야합니다. 방법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룸메이트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 부탁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하고 물건을 사서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택시를 타야하는데 택시비가 좀 많이 비쌉니다. 혹은 1년을 교환학생으로 오시는 거라면 차를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차가 있으면 참 편하기 때문에 몇몇 유학생들은 차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가격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연식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음식을 만드시는데 소질이 없으시다면 기숙사 음식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디를 가나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오프캠퍼스 하우징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 중에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쓴 글이라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드려야 하는데 글로 쓰려니 생각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이정도로 끝내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문자,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봉

email: leejb3984@naver.com

C.P: 010-4045-3984